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은 외국어통역과 번역,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소식지 인쇄책자 편집,  
사무실 지킴이, 쉼터 운영을 도와주실 자원활동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하실 때는 후원금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쌀이나 김치, 감자, 양파등 부식이나 비누, 전기장판,  
난로, 깨끗한 헌옷, 이불 등 생활용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쉼터와 사무실 운영비,  
환자치료비, 장례비, 귀향정착을 위한 교육비,  
자료비로 쓰입니다.

국민은행 ▶ 210-21-1413-820 이란주

- 한국어 교실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4시
- 컴퓨터 교실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  
1시 30분
- 장 소 : 부천노동복지회관  
(전화 : 032-678-6962)
- 문 의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전화 : 032-654-0664)  
(FAX : 032-668-0077)



# 개밤의 도토리

부 · 천 · 외 · 국 · 인 · 노 · 동 · 자 · 의 · 집





## 지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임영담

석왕사 주지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장미 빛 꿈을 안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혹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마다하는 고된 업종에 종사하며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라는 신분을 악용한 일부 업주들은 임금을 체불하고 산업재해 보상도 외면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닥친 IMF 상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다친 몸으로 내몰리듯이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4년간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재정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힘겹겠지만, 지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이 펴낸 <개밥의 도토리>에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상담소의 활동내용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만나게 될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3	발간사 · 지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임영담/이사장
04	격려사 ·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원혜영/부천시장
05	제언 ·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섭시다	백선기/부천연합 의장
07	무슨일을 할니까? · 상담에 대한 이야기	
12	공동체 소개 ·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15	개밥의 도토리가 사는 모습 · 썩썩한 태국 아줌마 팬 / 쌍둥이 아빠 바라씨	
23	살짝 엿보는 편지글	
	우리 백두산에 가서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전일신/중국동포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내는 편지	권규대/변호사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니알에게	하중심&무하마드 카심 칸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김재급/이주노동운동 활동가
33	여기서 잠깐!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운동	
36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라 부르자	

CONTENTS

펴낸이 : 고 태 훈

워른이 : 이 란 주

펴낸곳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전 화 : 032-654-0664

팩 스 : 032-668-0077

펴낸날 : 1999년 1월



##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원혜영

부천시장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

노동의 기쁨만큼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한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여건은 다소 다르더라도 이 땅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억압받지 않으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이 그 동안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과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 내·외국인 근로자가 상호 선린우호 속에서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조국과 또 우리 한국경제 발전을 위하여 온갖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곳곳이 살아가시기 바라며 돌아가실 때 꼭 우리 부천에 대한 좋은 기억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려울수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섭시다.

백선기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천연합 의장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

IMF한파가 어찌나 매서운지 어느 때와는 다르게 잦은 눈발이 오하려 온기로 느껴집니다. 부도와 휴·폐업,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에 기름 값을 비롯한 각종 물가인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장 하루를 건디는 것조차도 험겨워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국타향에서 겪은 산재로 인한 죽음과 신체장애, 비인간적 폭행과 인권유린, 병고로 인한 그 고통은 당사자들과 관심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건디기 힘든 지경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 나이와 성의 차이는 물론 국적이 다름에 의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차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명된 문명사회의 보편적 원리로 항상 관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학의 인내천사상이나, 유교의 인본주의는 물론이며,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원리나, 일체중생이 개유불성(一切衆生 階有佛性)이라는 석가의 가르침이 시공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력을 지니고 이어져 온 까닭도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높이 날고, 사람의 진기는 어려울 때일수록 빛난다고 합니다. 경제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면, 우리 민족의 자존은 더욱 높아지고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단체에 대한 후원과 참여,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그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법과 제도의 개선에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 무슨 일을 합니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은

### 1 노동 상담

이주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사망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2 의료 상담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치료를 돕습니다.

### 3 심터 운영

갈 곳 없는 이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심터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눕니다.

### 4 교육 문화 활동

이주노동자가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하고,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소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합니다.

### 5 귀향정착을 위한 교육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 정착하여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 6 연대 활동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소를 위해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여론작업, 정책대안 제시, 캠페인 등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 상담에 대한 이야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이 생긴 것은 95년 3월말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95년 1월초에 연수생들 십 여명이 명동성당 앞에서 연수생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쇠사슬로 몸을 묶고 찬 돌 바닥에 발을 구르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제발 우리를 가두고 일 시키지 마세요.'

그 일은 무척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담소도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글썄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면 답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주된 상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워은이)

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상담건수로는 약 400건, 인원으로는 약 1400명 정도가 상담을 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건수와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 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의료, 숙식, 산재, 출입국 등입니다. 상담이 아니라도 한국어를 비롯한 각종 교육, 행사참가, 친구 만나러 오는 수를 다 합치면 연간 8000이 넘는 수가 상담소 문턱이 닿도록 넘나들었습니다. 상담소 출입문이 나무였는데 너무 열심히 여닫은 탓인지 다 부서

져서 알루미늄 샷시로 바꿔야 했습니다. 주로 일요일에 상담이나 방문이 몰리는 편이지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98년 들어서는 상담인원과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데다 한국정부가 거의 몰아내다시피 한 까닭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97년 말에는 약 18만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와 연수생등 합법체류 이주노동자 약 6만을 합하여 약 24만에 달하는 수가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한국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97년 말 찾아든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정부가 시행한 '이주노동자 무조건 몰아내기' 계획에 따라 98년 8월말까지 약 6만명의 불법체류자가 떠났으므로 약 18만이 남았었습니다.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8만의 이주노동자가 한국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연수생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관광비자나 친지방문비자 학생비자등을 받아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으니 이후로는 수가 점차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상담소에는 부천뿐만 아니라 인천, 안산, 수원, 김포, 평택, 천안, 대전, 의정부, 마석, 구리 등 먼 지역에서도 찾아옵니다. 수도권지역에 10여 개의 상담소가 있어서 가까운 쪽으로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상담을 받고 같이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 임금체불상담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면 우선 그 회사의 노동자 숫자를 파악합니다. 전에는 이주노

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98년 10월부터는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99년 1월 부터는 4인 이하 전 사업장에 일부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체불액이 많아도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상시 고용인 4인 이하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주를 설득하다가 약간의 협박도 해보고 안되면 면살잡이를 하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기도 합니다만,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해결률이 60%를 밑돕니다. 이것도 97년까지 일이고, 98년 들어서는 사업주도 식구들 데리고 거리를 나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해결률이 20%도 안됩니다.

### 산업재해상담

산업재해를 상담해 오면 실무자들은 일단 긴장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수 5인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이 되지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만, 5인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민사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부주이나 안전장치 미비로 몸의 일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잘리거나,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다치는 경우 등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하니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이주 노동자 본인도 본국에서는 육체노동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는 이들이 많아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재로 할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과 치료 받는 동안 임금의 70%를 생계를 돕기 위한 휴업 급여로, 노동력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어도, 상시 5인 이상이 일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사후 가입할 수 있으며, 혹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안 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더라도 강제로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에 비하면 요즘은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주노동자 산재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처리 후에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자료를 넘기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료를 받아서 산재자는 무조건 출국조치하고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어떤 사업주가 호락호락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노동법 적용도 좋고 산재보험 적용도 좋지만 체류자격과 연결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산재로 안 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은 또 어떻게요? 물론 양심적이고 경우 바른 사업주도 있어서 충분히 치료받게 해주고, 알아서 보살피고, 보상금도 챙겨주기도 합니다만 하늘에 별 따듯이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고, 간신히 치료나 해주고 맙니다. 내가 다치라고 했-

나 이거지요. 자기가 실수해서 다친 것을 내가 왜 보상해 주느냐. 내가 들인 병원비만 해도 얼마인지 아느냐고 언성을 높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수가로 모든 수술비, 진료비를 계산하니 치료받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상담소로 알려주지만 하면, 좋은 병원에서 적은 진료비로 진료받도록 해 줄텐데, 대부분이 사고가 나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아무 병원이나 입원시키기 때문에 병원비로 인한 문제가 커 집니다.

어떤 사업주는 치료비에 보상금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사업 건어치우고 잠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잘린 손 뭉개진 다리를 붙들고 겁먹은 눈만 껌벅이는 이주노동자는 오갈데 없이 버려집니다.

이주노동자나 한국인노동자나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에서는 더더욱 한국인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실업자들이 일자리 없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그런 일자리는 널렸는데 일하지 않으려 한다고 아직 배가 덜 고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월급 때이기 일수이고 산재를 당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자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서 일하라고 등 떠밀기 전에 노동자가 하나든 둘이든 노동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도 당연히 적용시키는 일이 우선 아닐까요.

이주노동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2년 동안은 한국에서 받던 임금을 인정해 주지만 그 후로 60세까지는 출신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에 비한다면 형편없

이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이에 비하면 산재보험은 한국인과 똑같이 보상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망상담

이주노동자에게는 사망 또한 무척 혼란 일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살해, 질병, 자살 등등... 요즘은 임금체불이나 출국시 벌금문제로 비관자살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각종 사고로 사망할 경우는 산재일 경우와 같이 법적인 해결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장례인데 망인이 불교나 힌두교도인 경우에는 화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허락 하에 화장하여 유골을 가족에게 보내줍니다. 비용도 약 100만원 정도라 주변 친구들이 추렴하고 상담소에서 보태면 그럭저럭 장례를 치를 수 있지요. 그러나 이슬람교는 화장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신을 본국에 보내야 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또 가족 장례를 치러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병원영안실 횡포가 말이 아니거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염이며 입관까지 친구들과 상담소실무자가 나서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 의료상담

간단한 질병일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료나 아주 적은 비용만 받고 진료해 주는 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상담소는 신천연합병원이나 정유근 산부인과, 김석준 이비인후과, 김교식 치과, 부천한의

원, 성가병원, 손인환 한의원, 신상호 치과, 아세아병원, 적십자 병원, 길병원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오랫동안 입원 치료할 경우에는 병원비 때문에 아주 곤란해 집니다. 본인이 부담할 능력도 안되고 실무자나 친구들이 주머니를 털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에 사정사정하고 매달려 감액받고 복지재단이나 종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합니다. 이럴 때 서로 도우려고 공동체나 의료공제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 원활하지 않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벌금

다른 나라에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한국처럼 정도가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해 벌금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출국시킵니다. 물론 고용주에게도 벌금 내라고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벌금을 비판하여 자살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산재처리 한 후에도 사업주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니 어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고 나갈 때는 벌금으로 발을 거는 거지요. 발에 걸려 탁 엎어지면 주머니에서 떨어진 잔돈 뿐이며 사탕부스르기까지 얼른 주워담는 식이거든요.

말로는 어떻게든 불법체류자를 줄여야 한다고 떠들면서도 돌아가겠다고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가면 벌금을 얼마 얼마 내놔라, 없으면 가서 벌 어와라' 하며 돌려보냅니다. 벌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받는 벌금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가겠다고 사람을 도리어 붙잡아 두는 구실만 할 뿐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노동을 했던 본인이 원하면 나가고 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본래 노동이 목적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가 보장되는 한 벌금을 아무리 무겁게 책정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한다 한들 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일자리도 적어지고, 환율차가 줄어 더 이상 체류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되면 자진출국을 하게 되는데 도리어 벌금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벌금제도는 밀려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를 막을 수도, 불법체류하는 이주노동자를 다스릴 수도,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를 내보낼 수도 없게 만드는 묘한 법제도인 것입니다.

우리상담소에서는 다급히 돌아가야 할 경우에 출입국 측에 협조요청을 해서 벌금을 감면받든지, 무 벌금 처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 방법은 일을 근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벌금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캠페인을 하거나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타

그밖에도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도 많이 일어 납니다. 가끔 상담 받은 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같이 공장을 방문하면 실무자가 보고 있는데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더하겠지요. 가끔 이주노동자도 달려들어 같이 싸우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고 결국은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참고 참고 또 참아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면서요.

경제가 나빠진 후로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나쁜 놈'으로 치부하며 곱지 않은 시선과 야유를 보냅니다. 내 일자리도 없는데 네 놈이 왜 여대 안가고 내 자리 빼앗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노동자가 월급을 제 나라에 다 보내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다'며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라고나 할까요. 또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희롱

이나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 저항도 못하리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도 혼자 괴로워 할 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숨기기 때문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리 예방하는 일이 중요한데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일하는 환경이나 지내는 숙소가 너무 허술한 경우가 많아 걱정스럽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상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라 하면 괜히 거창한 것 같고, 너무 낮설어서 선뜻 문열고 들어서기 겁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원미동에 오실 일 있으면 잠깐 들르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 허름하다구요? 우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미얀마 공동체(MAK)와 네팔공동체(NCC)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옆에 옹기종기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썰렁했던 사무실에 불이 켜지고, 활기가 넘친다는데...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류은이)

재한 네팔인 공동체(NCC, Nepalese Consulting Committee in Rep. of S. Korea)

네팔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 네팔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 두다가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1993년 2월 21일 설날에 NCC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7명이 중심이 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NCC 멤버들은 임금체불, 산재문제, 출국문제 등을 상담소 실무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해결하기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던 친구를 위해 돈을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한국에서 불행하게 죽어간 친구의 가족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네팔인들은 힘들고 넉넉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NCC를 믿고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993년 10월 1일에는 네팔 민속춤, 노래 공연을 통하여 네팔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이 행사는 거의 매년 가을 더싸인 띠하르(추석)를 축하하는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NCC는 앞으로도 재한 네팔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네팔의 민간 외교 창구로 자리잡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 미얀마 공동체(Myanmar Association in Korea)

미얀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조금 늦게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사람들과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미얀마 공동체는 1996년 4월에 첫 모임을 꾸렸습니다.

미얀마 공동체는 우웡페 회장을 중심으로 킨 마웅 부회장과 안나이 사무장, 회계 짜 랏씨가 알뜰히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웡페 회장이 미얀마로 귀국했기 때문에 킨 마웅 부회장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웡페 회장님은 공동체의 대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한국에 사는 모든 미얀마인들이 어른으로 따르고 존경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동체는 크고 작은 행사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98년 3월 15일에 미얀마에서 가수들을 초청하여 부천 시민회관에서 콘서트를 열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와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기 위해 준비했던 행사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98년 11월 22일 미얀마 불상을 부천 석왕사에 모시고 점안식을 가졌던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다가 귀국한 미얀마인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미얀마에서 제작한 불상을 한국으로 모셔온 것 입니다.

부처님은 유달리 불심이 강한 우리 미얀마인들에게 정신적인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에 미얀마의 불교문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점안식에는 전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모두 모였으며, 미얀마에서 먼길을 마다 않고 축하하러 오신 큰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일을 치를 때마다 공동체 간부들 고생이 무척 크지만, 우리 공동체는 미얀마인의 화합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 나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잉나잉은 이제 열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소사동 뒷골목에서는 골목대장 노릇을 제법했는데 남동공단은 어쩐지 낯설기만 합니다. 아침이면 엄마, 아빠는 공장에 가시고 혼자만 남아 방안을 서성대다가 가만히 창문을 열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엄마, 나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봄이 와서 세상 모두 푸르고 아름다운데  
죽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는 이주노동자 인권의 나무입니다.

우리 희망의 나무는 봄이 와도 잎을 피우지 않습니다.

산재를 당한 우리 친구들은 나무가 언제 살아날 지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으면 말라버린 나무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살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주노동자가 그린 공동그림 중에서 -

## 고달픈,

그러나 아름다운 삶 ...

'개밥의 도토리' 가사는 모습!

· 상담소를 꾸리다 보면 사건, 사고에 묻혀 정작 서로의  
· 삶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질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을 비뚤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고  
·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을 조심스레 소개합니다. 얼마나  
· 고단한 삶을 꾸리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따뜻한  
· 삶을 살고자 애쓰는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역은이)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 씩씩한 태국 아줌마 '팬'

팬은 잔잔한 듯 하면서도 여간 씩씩하지 않은 서른 살 아줌마입니다. 곱상한 얼굴에 눈이 얼마나 크고 시원스러운지 아무 말 없이 눈을 깜박거리고 있는 걸 보면 꼭 송아지 눈을 보는 것 처럼 순박해 보입니다. 사실 팬과 저는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도 못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본 적도 없습니다. 팬은 항상 사는 일에 열심이라 큰 맘 먹고 사무실에 오지 않는 한 얼굴 보기가 힘들거든요. 또 만난다고 하더라도 한국말이 서툴러서 속내를 이야기하는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한 두 가지 단어로 대강 뜻을 전하고 눈빛으로 마음을 읽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제가 팬과 이야기를 나눌 때 송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95년 5월경에 위나이라는 태국인이 잠자다가 갑자기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청장년급 사증후군이며 그 병의 원인은 여러가지라고 하는데, 위나이 경우에는 과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위나이가 살던 방(?)에는 여러명의 태국인들이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이라고 써놓고 물음표를 찍은 것은, 그곳이 방이라고 하기도 집이라고 하기도 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장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창고에서 맨 바닥에 박스 몇장을 깔고 이쪽 구석은 남자, 저쪽 구석은 여자 또 한쪽 구석은 부엌살림 몇가지. 그래도 거기서 먹고 자니 방은 방이겠지요.

그 방에서 같이 지내던 태국인들은 위나이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지둥

했는데 그나마 더듬거리며 통역을 했던 것이 팬이었습니다. 그때 팬을 알게 된 것이지요.

팬은 결혼을 꽤나 일찍 했는지 열세 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했다는데 별로 남편이야기는 안 하더군요. 아이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동바동 하다가 아이를 오빠 집에 맡겨 놓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태국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다고 남들이 그러듯이 매춘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고 담담하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하길래 아이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긴 속눈썹이 금세 눈물로 젖어듭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서 마음아프게 했나 봅니다.

팬과 10년차이 나는 사촌동생 노이가 96년 초에 한국에 와서 팬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노이도 눈이 크고 예쁘장한, 부끄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일도 잘하고 씩씩해서 공장식 구들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이가 97년 10월말에 프레스에 오른손을 찍혀 몽땅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목부근이 절단되었으니 아예 손이 없어진 것이지요. 노이는 그 회사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산재가입도 안되어 있고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계속 일처리를 미루다가 사고 난 지 한달 후에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달아

나 버렸습니다. 더구나 상담소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했을 때는 달아나기 얼마 전이었는데도 일부러 자기 이름을 새로 바뀔 사장 이름으로 알려주는 등 아주 파렴치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상담소에서도 골탕을 많이 먹었지요. 새로 온 사장이야 당연히 나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모른 척 하겠지요.

노이가 보상받을 방법은 단 한가지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었던 것을 증명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사고 전에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사고 당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이었던 것만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산재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같이 일했던 한국인 공장장과 이미 태국으로 돌아갔던 친구들이 증인을 서 주고, 거래 회사에서도 거래내역을 확인해 주는 등 도움을 주어 우여곡절 끝에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이의 산재 건을 해결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의 담당자들도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도록 도와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팬은 사고가 난 후에 회사를 옮겨서 노이를 보살피며 일했습니다. 그때가 97년 말이라 회사가 부도를 맞고 어려워 하루 열두 시간이 넘게 밤낮 맞고대일을 하면서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월급주세요"

"야, 돈 없어. 이거 봐. 돈 없잖아. 기다려. 집에



▲ 노이가 손을 다쳤을때

갈 때 다 줄께."

빈 지갑을 열어서 흔들어 보이는 사장. 팬이 전하는 사장과의 대화광경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쌀값만 몇 푼씩 받아가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동생까지 없혀 지낸다고 사장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던가 봅니다. 노이가 보상금 받아서 집에 가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는데 그 동안 어리광 많은 노이를 달래가며 보살폈습니다. 혹시 사장이 노이 더러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눈치보면서 말이지요.

저는 노이 사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팬이 이야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아니 웬 과부가 이야기를 가져?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아마도 새 사람을 만났던가 봐요. 제가 추궁하던 추궁을 하니깐 그제서야 털어 놓더라고요. 그 소식에 상담소 식구들이랑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팬이 짐을 좀 덜겠구나.

그런데 새로 태어날 이야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기서 낳아서 키우자면 너무 힘들 텐데... 팬은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서 이야기를 낳겠다고, 남편이 돈 벌어서 보내준다고 이야기 키우면서 남편 기다리겠다고. 그러나 문

## 쌍둥이 아빠 바라씨

오랜만에 상담소를 찾은 바라씨가 문뜰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생각한 뒤에야 한동안 잊었던 그의 웃는 얼굴을 기억해 낼 수 있었지요. 바라씨는 그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싱긋싱긋 웃던 다소 어려 보이던 얼굴이 잔주름술술 잡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버려서 장난스레 그려놓은 만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왜 그러냐는 물음에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네요. 한 삼년 못 본 사이에 변화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언젠가 우리 상담소에서 행사가 있을 때였는데 흥겹게 노는 풍물패를 따라 연신 어깨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던 모습입니다.

총각이었던 그가 어느새 세 살 된 해인이, 아홉 달 된 쌍둥이 효정이, 효진이 세 딸의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동인씨는 한국인입니다. 봉제기술자인 바라씨와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되었다구요. 네팔여자라 비슷하고 너무 착해서 좋아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슬쩍 꺼내놓는 사진 속에는 웃는 아내 얼굴이, 컷돌 때 분홍꼬깔을 입고 방긋거리는 해인이 얼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 말고도 두 놈이 더 있어요. 쌍둥인데 지금은 사진이 없네요"

놀라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낳으려고 했는데 쌍둥이 였다고, 그

서 출지에 셋이 되었다고, 그 녀석들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진땀이 난다고 합니다. 어린 해인이는 계속 보채고, 힘들어 축 늘어진 산모에 갓난이 쌍둥이는 얼마나 울어 댔는지 모른다고. 그렇다고 회사일을 게을리 할 수도 없고 해서, 아침에 밥해 놓고 나가서 점심을 잠깐 들어와서 아이들 돌보고 아내 돌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밤에는 새벽 1시, 2시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한국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일이 말예요. 혹시 혼인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한국 국적을 얻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돈을 좀 모아서 네팔에 갔다와야 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라이'라는 친구가 먼저 네팔에 갔어요. 그 친구도 한국여자랑 결혼 해서 은빈이라고 두 살 된 아들이 있어요. 네팔에 가서 혼인신고는 어떻게 했는데, 다시 한국에 오질 못했어요. 은빈이하고 엄마만 들어오고 라이는 비자를 못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 은빈이랑 은빈이 엄마가 우리 집에 왔길래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더니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제일을 한번 배워보라고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랑은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네팔에 가서 사는 것은 상상도 안 한대요. 어떻게든 라이가 와서 같

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갈때 다 주겠다고 사장님이 돈을 못 준다는 겁니다. 월급은 여섯 달이나 밀렸는데 50만원 밖에 줄 수 없으니 그거라도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말라나요. 다 받고 싶으면 9월까지 기다려 봐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하지만 그때가 98년 5월이었는데, 9월이면 벌금면제기간도 다 끝나고 갈래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지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하나. 돈을 못 받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수술로 아기를 지우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돈이 많이 들 거고,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식당아줌마가 알려 준대로 아기 지우는 약을 먹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하면서,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개월이 넘는 아기를 어찌겠다고 약을 먹었을까. 복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픈 배를 끌어 안고, 프레스 기계 앞에 서서 일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막 화도 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 아예 애원을 했습니다. 팬은 막무가내로 못 간다는 거예요. 사장이 단속 기간에 나다니다 잡히면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내야하니까 병원에도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 망할 사장놈 염치도 없다고 제가 막 욕을 했습니다. 팬찮다 내가 다 책임진다. 돈도 없다 병원에 돈 많이 줘야 한다. 내가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보자. 안 된다. 못 간다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동안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팬이 하는 말이

"관주... 나...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아프고 크게 들리던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에 주렸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내 작은 관심을 이렇게도 고마워 하는구나 싶어 저도 마음이 저렸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임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못 알았던 것 같더군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의사선생님 말씀이 맞겠지만 팬이 하도 우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런 약은 있지도 않다는 군요. 팬의 임신사건은 우습지도 않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했느냐구요? 역곡에 정유곤 산부인과 원장님이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세상에 고마운 분들이 참 많답니다.

팬이 다니던 회사는 8월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팬은 일곱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떼이고 실업자가 되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지쳐서 늘어져 있는데 혼자만 열심히 돌아다니더니 안산에서 일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곱 달이나 돈을 못 벌었는데 월 새가 어디 있는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소에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팬은 지금 이 시간에도 프레스 기계를 쿵쿵 찍어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팬이 너무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온갖 힘든 일을 다 이겨내며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 바라씨네 꿈둥이들

이 살아야 되는데... 은빈이네 보니까 무작정 갔다가 못 올 수도 있구나 싶어서 저도 걱정이네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만아들인데, 돈 벌러 와서 이렇게 주저 앉아서 뵈러 갈 수도 없잖아요. 벌써 몇 년인데... 걱정 많이하고 계실 거예요”

혼자 벌어서 다섯 식구 살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원 짜리 방 한 칸에 다섯 식구가 살면서도 방세를 못 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면 월급도 조금은 낮게 받을 수 있을 테고 월급을 때이는 일도 적을 텐데, 요즘은 월급이 잘 안오니까 회사를 자주 옮기게 되고 옮기면서 아주 못받게 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아내 동인씨가 뭔가 일을 해야겠다고 한다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합니다. 바라씨가 혼자 벌어서는 아무래도 생활이 힘들고 아내까지 일하게 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셋이나 어디 맡길 데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다가는 탁아비용이 버는 돈보다 더 나갈 것 같아서 엄두

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91년에 한국에 와서 벌써 8년째,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이 미안하고 혹시 불잡혀 강제출국 당하지나 않을까 마음졸이며 사는 일이 힘겹다구요.

“한국이 우리 사랑을, 우리 가족을 인정하고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한 가정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혼인신고가 어렵고, 자녀가 태어나도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적법이 바뀌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였을 때 자녀의 국적을 어머니를 따라 한국 국적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림에 떡이라고나 할까요. 해인이네도 출생신고는 했지만 미혼모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6월에 국적법이 바뀌면서 국제결혼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간이귀화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혹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때에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불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계산하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체가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진 출국해서 불법체류 상태를 벗어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입국하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억지스러운 것이 출국한 상태에서는 불법체류 경력때문에 비자심리가 거절되기 쉽습니다. 은빈이 아빠처럼 입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국제법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떨어져 살지 않도록, 어린이가 가정 내에서 양육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보호하고 원조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약이나, 어린이가 어린이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에서도 발효되고 있는 국제법입니다.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해인이네 세 자매가 아빠와 헤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은빈이가 아빠 없이 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이 사람!



비비 말라(Pritha Bahadur Malla) 씨는 98년 10월 18일 기숙사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 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네 시간 가까이 쓰러져 있다가, 우연히 기숙사에 놀러 왔던 친구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이 심하여 살아 날 기망도 별로 없는 상태였으나 의정부 신천병원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은 후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서 눈을 깜박여 의사소통을 하고, 입에 떠 넣어주는 음식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도 하고, 혼자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비씨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발생한 병원비만해도 4,000만원이 넘는답니다. 병원에서 1,500만원으로 진료비를 감액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친구들이 모금을 한다, 비자회를 한다하며 돈을 모아 보았지만 아직도 1,000만원이 모자랍니다.

비비씨는 우리가 돕는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한 국 에 서 온 선 물



- 아빠의 얼굴이 박힌 티셔츠 -

## 살짝 엿보는 편지글



우리 백두산에 가서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니알에게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전일신 / 중국동포 어린이

권규대 / 변호사

하종심 & 무하마드 카심 칸

김재금 / 이주노동운동 활동가

## 우리 백두산에 가서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전 일 신

보고싶은 한동성에게

안녕하니? 나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원소학교 3학년 6반 반장 전일신이다. 네가 보낸 편지를 잘 받아 보았다. 연길시는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이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은 연길에서 45시간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전국 축구경기에서 2등을 하였다. 우리 집에서는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KBS 방송도 시청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최신키요들도 유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돈벌러 간 아빠 엄마들이 많아 어린이들이 몹시 기다리고 애태우고 있다. 우리 아버지도 1995년에 한국에 갔었는데 지난 10월 28일날 집에 돌아 오셨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몸 건강히 돌아오실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거운 쇠파이프에 깔려서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하고 25cm나 되는 수술자국을 배에 남겨 가지고 오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배속의 장기들을 떼어내는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한푼의 보상도 못 받은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박초롱초롱빛나리양의 이야기도 해 주셨다.

부천시에 있는 윤창노란 악덕업주는 상습적으로 중국 동포들을 부려먹고 인건비를 안 주는 나쁜 놈이란다 그렇게 떼어먹은 돈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의 주민등록번호는 580728-000000이고 전화번호는 032) 679-0000 이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정치가 잘 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 오죽하면 한국의 어린이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정치인'이라고 하겠니!

그리고 배가 고파 죽어 가는 북조선어린이들을 위하여 한국의 어린이, 아빠, 엄마들이 식량을 사보내지 못하게 하는 한국 정부를 리해할 수 없다. 우리 연변의 어린이들은 한

국에서 이번에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셔서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

시간이 있을 때 중국에 꼭 놀러오기 바란다. 백두산에 가서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우리집 전화번호는 001 86 433-000000 이다. 안녕히...

전일신 씀 1997. 11. 12

전일신 어린이의 아버지 전홍일씨는 1995년 한국에 와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장이 다 파열될 정도로 큰 사고 였는데 생명만 간신히 건졌을 뿐, 노동은 불가능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액이 4,000만원이 넘어야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데, 전홍일씨가 일하던 공사는 그보다 규모가 작고, 고용주도 책임질 능력이 없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가슴에 분노만 품고 돌아갔습니다.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 따뜻한 겨울나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은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지원을 받아 실제 이주노동자의 겨울나기를 돕습니다.

- ▶ 사업기간 : 98년 12월 ~ 99년 3월
- ▶ 지원내용 : 귀국비용 · 의약품 · 식비 · 난방비
- ▶ 문 의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TEL.(032-654-0664)

##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내는 편지

권 규 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몰래 사오신 시계를 저에게 주어주시며 아저씨가 귀국하신 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번 귀국직후 가족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고도 그 동안 변변한 문안편지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진에 실린 큰아들이 무척이나 듬직해 보이던데요. 지금 이곳은 가을이 얼굴만 살짝 비치고는 이내 겨울이 오려는 듯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가을 햇살이 짧아 단풍도 곱지 않다고 합니다. 아저씨 계신 대경시는 어떤지요.

아직도 가끔은 제 자취방에 가득하던 독한 청자담배 냄새와 아저씨의 잦은 한숨소리, 낮선 의족을 그나마 풀어놓은 줄도 모르고 새벽에 급히 일어나려다 행한 한 쪽 다리에 다시 쓰러지며 당황해 하시던 아저씨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저씨가 귀국하시고 많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저씨가 일하시다 한쪽 다리를 묻은 그곳에는 계획대로 지하철이 개통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라는 명함을 지갑에 넣어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아내와 온종일 종알거리는 말 많은 딸도 얻었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문민정부를 거쳐 최근에는 여야간 정권교체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동부에서 거부하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그 후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등 일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늘상 최소한 인권마저 밀려나는 현실이나 그나마 있는 법과 제도의 보호로부터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현실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구제금융 이후 많은 내국인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차마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용기조차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내국인의 해외취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인식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일

자리에서 밀려난 외국인 노동자의 우범화 문제가 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드러납니다.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할 곳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이나 일자리 보장에 관한 정책은 전혀 별개여야 하고 노동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이 인권이라 한다면 이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많은 애를 써온 시민단체들도 요즘 무척 외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조차 타인의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변호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약간의 인연을 맺고 있지만 지금도 아저씨의 보상문제를 함께 고민하던 6년 전 그 때의 안타까움이나 자괴감을 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바쁘다는 이유로 때론 소극적인 성격을 빌미 삼지만 어쩐지 부채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을 아직 제대로 익히지 못하였다고 아저씨가 걱정하시던 막내아들이 혹시 아버지가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고국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됩니다. 보내주신 단란한 가족사진에 위안을 해 보며 다시 빚는 날까지 아저씨와 온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멀리서 빌어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아저씨를 포함한 동포분들이 어디서든 조국의 건강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8. 10. 서울에서 조카 올림

이 글을 쓰신 권규대 변호사님은 법대 학생 시절, 먼 친척인 중국 동포 아저씨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고, 우리 상담소의 법률 상담까지 도맡아 해주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니알에게

하종심 & 무하마드 카심 칸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열 달 동안 엄마뱃속에서 함께 숨쉬고 생활하다 이제 세상 빛을 본 지 겨우 6개월 쯤. 너무나 어리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 난 너를 얻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이 세상을 다 준다면 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 널 정말 정말 아끼고 사랑해. 이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어느새 힘겹게 네 아빠와 지내온 날들이 벌써 6년.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지만 널 얻어 엄마, 아빠는 그 힘든 기억들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성남 지하 단칸 방에서 지낼 적에, 생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부터 '모세 기관지염'으로 아파하는 너를 석 달이 넘도록 병원을 드나들며 많은 고생을 시키고, 다른 아이들 다 있는 그 혼한 '오뚜기 장난감' 하나를 못 사주고 지내버린 시간. 이제는 소중한 너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살려다 다짐했는데... 돈이 무엇인지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아빠 월급이 나오지 않아 네 분유 값이 없을 땐, 두 눈이 통통 붓도록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그러면서도 아빠, 엄마는 항상 밝고 명랑하게 웃으며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매 한가지란다.

너를 아빠, 엄마 곁에 두고 사랑으로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잠시 파키스탄 할머니께 보내려 한단다.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무척 힘이 들었지만, 지금 현실에선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한다. 곤히 잠든 널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눈물만 흐르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단다. 널 멀리 보내야만 하는 이 심정을 나중에 나중에 네가 크면 꼭 이해해 줄 것이라고 아빠, 엄마는 믿는다. 너를 멀리 보내고 아빠,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정말 답답하긴 하구나.

널 보내야만 하는 이 마음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뿐이다. 앞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

지만 너에게 사랑을 듬뿍 줄게. 그 곳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안정이 되면 엄마가 '꼭' '꼭' 데리러 갈게. 알았지! 그때까지만 참고 잘 자라주었으면 한다. 정말 미안하구나.

다니알 널 아주 많이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이 글은 <지구촌 사랑 나눔터> 2호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 에 실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지구촌 사랑 나눔터는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배우자의 비자 연장에 관한 정보교환, 98년 6월 개정된 신국적법 내용, 자녀들의 교육, 의료문제 등 국제결혼 가정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입니다.

후원인이 되어주세요!

어린 '다니알' 이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니알 · 해인이 · 효정이 · 효진이 · 미진이 · 경린이 · 강민이 · 수빈이 · 준석이 · 은빈이 · 요한이 · 가림이...

모두들 기가막히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꼬마들이 너무 일찍부터 '절망'이라는 말을 배우지 않도록 하는것.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TEL(032-654-0664)

##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김재금

란주언니 보세요.

초저녁 서울에서도 볼 수 있을 초생달이 아직 푸르름이 어두움으로 묻히지 않은 하늘에 걸려 있네요. 처음엔 어딘가 비몽사몽하던 정신도 이제는 완전히 이방의 땅에서 나의 존재를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의 타말이라는 곳으로 서울의 이태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찾기 힘든 패스들이 이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사가 늦었군요. 몸 건강하게 잘 있는지요. 정신이 없다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까먹을 지경입니다. 일이 너무 한가하다보니(쉼터의 일에 비해) 나는 죄책감을 한편으로 느끼고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시골이라 연락이 되지 않아 통신사정도 좋지 않고 하여 모이는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 걱정스럽기도 하답니다. 지금 쉼터는 어떤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쉼터의 일을 쉬어 본 적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복잡한 쉼터를 떠나 있다는 것에 해방감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곳에 와서 나는 나의 많은 한계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가진 자라는 것, 아무리 가난한 자가 어쩔네 떠들어도 그들과 결코 동일화 될 수 없는 역겨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앞으로도 결코 거리의 아이들이나 밀바닥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길거리에서 마약과 굶주림에 절어 거의 동물이 되어 가는 십대 소년소녀들을 발견할 때마다 어찌해야 할지, 내 영혼과 육체는 너무 배부르고...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다 하는 성경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식당을 향해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이국의 땅을 낭만스럽게 걸어가곤 하지요. 가끔 몸을 파는 가난한 네팔청년을 만난 경멸하면서요.

내가 묵고 있는 여관에는 이상한 외국인들이 많답니다. 내 옆방에는 한 네팔청년과 두 명의 일본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며 잠도 같이 자지요. 2층에 있는 어떤 오스트리아인은

거의 벌거벗다시피하고 돌아다니거나 저녁이나 아침에 가끔 소리를 질러대는데 흡사 동물이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옆방에는 스웨덴에서 왔다는 금방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는지 약간 손이 돌아가고 발을 저는 사람이 있는데 1000루피(약 16000원)를 줄 테니까 네팔여자를 데려오라고 여관주인에게 날마다 요구한답니다. 여기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은 참으로 괴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나라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곳 젊은이들은 그들의 히피스타일의 머리모양과 행동을 따라하고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온 여자들이나 남자들에게 몸을 판답니다. 이런 현상이 결코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난과 부, 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존재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가 더 있는 나라에서 온 부자나라 사람들은 몇 천원도 안 되는 값싼 돈으로 그들을 삽니다. 슬프고도 위험하게도 나는 점점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분노나 절망을 벗어나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쓰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황설수설이지만, 언니도 이곳에 와보면 좋을 텐데요. 가난한 민족은 이미 부자나라에서는 폐차되고도 남았을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은 이미 선진국사회에서는 사라진 플라스틱과 고무신발을 신거나 대부분은 맨발입니다.

오늘은 카트만두가 정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깜깜하군요. 자체 발전기를 돌리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큰 호텔을 빼고는. 나는 윗 층에 촛불과 함께 앉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 둘 별이 나타나더니 알아볼 수 없는 많은 별들



▲ 어린 노동자



이 이제는 아득한 하늘을 가득 매웠습니다. 별자리를 더 익혀둘 걸 하는 늦은 후회도 해 봅니다. 제 옆에는 촛불이 무더운 여름밤의 실바람에 꺼질 듯 말 듯 깜박거리고 있군요. 마치 가난한 조국을 가진 가난한 백성들 처럼요. 밤의 어두움과 적막이 나를 한없이 자유롭게 하는군요.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분명코 가난함이 존재하는 곳에 부는 필연적으로 죄악일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이 이 또한 죄악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 이것을 인정하면 그만이겠지요. 인정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로 나의 역겨움을 더 쌓아가면서요. 아는 자의 유약성으로요.

바람에 계속 꺼질 듯 꺼질 듯 하던 촛불이 다시 일어서고 일어서고 하는군요. 아주 작아져서 꺼질 듯 하다가도 다시 소생하곤 하는군요.

굶주려 거의 동물이 되다시피한 어린이들과 가난한 조국을 가진 슬픈 젊은이들에 가깝기보다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의 육신을 싼값으로 흥정하고 사서 놀이개감으로 삼는 이들에 더 가까운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소름끼치도록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너무 비참한, 혹은 너무 슬픈 모습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정주가 '십자가'란 시에서 고백한 것 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나에게요. 사랑을 보내며.

95년 봄, 재금

김재금씨는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운동 활동가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귀향한 산재자 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을 위해 네팔에서 체류할 때 저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여러 분이 이주노동자를 가슴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김재금씨에게 미리 허락을 못 받았는데 이해 해 주겠지요



여기서 잠깐!

함 · 께 · 사 · 는 · 세 · 상 · 을 · 위 · 하 · 여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운동에 대하여 ...

부천외국인노동자집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이 국제 협약이 UN에서 채택된 1990년 12월 18일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1998년 12월 18일을 기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제 69차 UN 정기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최소한 20개 국가가 비준하여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까지 10개 나라만이 비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캠페인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정부가 이 국제 협약에 관심을 갖고 비준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지위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호의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 복지, 권리와 관계된 국가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상황에 있든, 불법적인 상황에 있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균등대우원칙,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보호, 합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되는 글은 1998년 12월 9일, 한국에서 비준 캠페인을 시작하며,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이 국제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발표했던 글입니다.

##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에 즈음하여 사회 각계 300 인사가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50주년이 되는 98년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는 ‘인권기구 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고 그 실현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치는 추상적인 인권 보호 의지는 자칫 홍보용으로 전락하거나 그 효과가 널리 미치지 않아 또 하나의 인권소외를 가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소외를 극복시키고 모든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합당한 원칙을 세우는 일인 ‘인권’이라는 개념의 기본적 함의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인식입니다. 유엔 인권선언이 서두에서 강조하는 ‘인류 모든 성원의 타고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인식은 세계의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근간이다’라는 원칙 속에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국 및 아시아의 경제 위기 상황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조차 반(反) 애국적인 혐의를 받기도 하는 사회, 문화적 편견이 이를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 기준에 관한 각종 선언과 포고령, 협약과 규약은 각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원칙이며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인권에 관한 세계 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인권보호에 관한 확대와 팽창의 시기를 절정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것은 다양한 문서에 열거된 권리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언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80여 가지가 넘는 인권관련 국제조약에서도 특히 일곱 개의 주요문서를 비준과 수행이 보편적이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UN인권선언’과 더불어 ‘인권에 관한 국제 헌장(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고 이야기 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포함하여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아동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세계 모든 정부의 대표자들에 의해 채택된 이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The Vienna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위의 7가지 핵심 협약만큼은 기본적으로 비준하여야 할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만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한국이 서둘러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인권기구의 발족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인권보장 개선의지가 국제적 표준에 맞춰 온전하게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인권관련 핵심 조약인 위 협약에 서둘러 비준하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아지역 일본의 불법체류자(미등록취업자) 1위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상황 악화 이후 해외취업자는 날로 늘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 피해 및 인권유린이 우려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국내 실업률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써 ‘해외 건설현장에 내국인이 취업할 경우 숙박비를 간접 지급하거나 어학 교육비를 보조하는 등 내년까지 20,000여 명을 해외에 취업시킬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송출국과 유입국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쉽게 방치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권리이며,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배척되는 대상 또한 이주노동자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이주노동자는 자국과 유입국의 외교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해도 위와 같은 협약이 없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입국이자 송출국이기도 한 한국이 스스로 본 협약의 기준에 앞장서고 상대 유입국의 기준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비준하라.
- 이 협약에 근거하여 헌법 및 노동법, 신실되는 인권기구법 등 재한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권국가로서 성실한 노력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한국인 주요 진출국에 대한 비준 촉구활동을 전개하라.
- 본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해외 진출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1998년 12월 9일 명동성당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수환 추기경의 300인 촉구인단

##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라 부르자!”

‘이민’이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민이란 먹을 것을 찾아 대자연을 떠돌던 인류 초기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국제이민’이란 말은 불과 2~300년도 되지 않은 최근에 생겨난 말이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민족 국가, 여권제도, 비자제도가 생겨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즉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운택하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경제생활이요, 노동이민 내지 국제 노동이민인 것이다. 노동이민을 가고 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노동이민, 거주이민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우리는 거리감을 두고 보아야 한다. 내국인, 외국인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은연중에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종주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 공간을 이동하는 노동자라는 의미에서 이주노동자라는 말이 훨씬 더 올바르다고 본다. 대신 내국인 노동자는 그냥 ‘한국인노동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불법(체류) 취업자가 아니라 미등록 노동자라 부르자.

오히려 ‘불법 취업자’라는 용어가 더 불법적인 것 같다. 만일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민주적, 인간적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미등록 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다. 행정당국에서 등록하라고 하는 데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노동(관계)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이주(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보는 올바른 눈’ 중에서

▶ 〈개밥의 도토리〉에 실린 글 중에는 이주노동자를 지칭하는 말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글을 쓰신 분이 이주노동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다른 표현을 쓰신 것으로 생각되며, 편집과정에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습니다.

(워먼이)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과 함께 하는 이들

Bucheon Migrant Workers house

### ● 이사회

- 이 사 장 임영담 / 석왕사 주지
- 이 사 권병학 / 부천농협 전무  
김명원 / 국회의원회 소사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김문수 / 신한국당 국회의원  
백선기 /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천연합 의장  
성양권 / 부천교회 담임목사  
손인환 / 손인환 한의원장  
신철영 / 경실련 집행위원장  
양요환 / 신천연합병원장  
원혜영 / 부천시장  
이원돈 / 새롭교회 담임목사  
이재욱 / 세무사  
제정원 / 천주교 여월동성당 주임신부  
조영상 / 변호사  
(이상 가나다 순)

- 법률자문 권규대(변호사, 부천 종합 법률 사무소), 김경훈(법무사, 김경훈 법무사 사무소)
- 의료지원 김교식 치과, 김석준 이비인후과, 라파엘 클리닉, 부천한의원, 성가병원, 손인환 한의원, 신상호 치과, 신천연합병원, 아세아병원, 적십자 병원, 정유곤 산부인과
- 재정후원 이사회, 부천시, 권규대, 신영국, 오광훈  
그 밖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마음 고운 이들
- 자원활동 남문현, 도정욱, 박영조, 송진호, 오광훈, 이숙희, 임은주, 장미소, 진광홍

### ● 상담소

- 소 장 고태훈
- 사무국장 이란주
- 간 사 김 현